

당뇨병과 약

몇 달 전 우리는 당뇨병 치료에 관련한 폭탄 같은 뉴스를 접해야만 했다. TV 9시뉴스에서 10~15%의 당뇨병환자가 사용 중인 '아반디아'라는 약제가 심근경색과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뇨병환자에게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유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합병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인데 이 약제가 심혈관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의사나 환자 누구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뉴스를 접한 환자들은 이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음날 외래에 찾아와서 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었다. 연락이 되지 않는 환자는 자의로 약을 중단하기로 했었다. 외래 진료에 방문한 환자는 왜 나에게 이런 약을 처방했냐며 내심 서운함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사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아주 높은 의학 잡지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었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대로 처방을 변경해주었으며, 새로운 당뇨병환자에게 처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호르몬이 폐경기 여성에게 삶의 질을 개선시켜줄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수십년간 사용해 오다가 대규모의 임상시험을 시행해본 결과 오히려 여성호르몬은 심혈관질환의 예방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유방암의 발생 등 해로운 점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일대 혼란을 겪어야 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다.

두달이 지난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아반디아'라는 약제는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허혈의 위험이 다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개선제로서의 그 역할이

있으며 처방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2대 1의 압도적인 의견일지로 마무리 되어 더 이상 의사나 환자나 이 약제를 처방하고 복용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상의 속에 처방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장황하게 당뇨병과 관련한 약제의 부작용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그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 느끼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하면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효과 뒤에는 부작용, 안전성의 문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의사들에게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들은 당뇨병환자들에게 생활요법, 즉 식사 및 운동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약을 처방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당뇨병 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환자들도 생활요법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워낙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약을 우선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해 개선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가의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처방을 하고 복용하고 있었으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약을 앞세우기 보다는 생활요법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우리는 쉽게 감정이 치우쳐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또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누가 당뇨병에 좋다고 하면 개똥이라도 먹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아반디아 같이 철저한 검증과정, 즉 동물실험에

임상시험을 거치고 실제 진료에서 수년간 사용하면서 검증해오던 약제도 안전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전혀 검증도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당뇨에 좋다는 소문에 의해 수십만원씩 들여서 먹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당뇨병에 여러 약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스러운 약제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나 의사들의 마음이야 수개월 먹으면 완치되는 약제의 개발을 원하겠지만 당뇨병의 속성상 그럴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더욱 비방이니 건강식품이니 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약제는 다만 혈당을 조절하는데 다소 기여를 할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다. 좀 더 개선된 안전한 약제가 개발되어 우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무엇보다도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당뇨병은 가족력이 아주 강한 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뇨병환자분들은 자기 질병을 잘 치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생활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 >



김대중 교수 /
아주대학병원
내분비대사내과